

## 심혈관질환 예방의 현주소

### 서 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심혈관질환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 감염성질환에서 비감염성질환으로 바뀐 이후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에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24.5%로 암에 의한 사망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심혈관질환이 한국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과거에 서구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사망원인 질환이었으나 이제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첨단 치료의학 발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심혈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 연구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밝히고 이렇게 알려진 위험요인에 대한 국가적인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미 20여년 동안의 노력으로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낮춘 미국에서도 심혈관질환에서 일차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30% 정도의 추가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심혈관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감염성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에 비하여 지금까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이 예상되는 허혈성 심질환과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고혈압성 심질환이나 출혈성 뇌졸중과는 매우 다르다. 과거 유행하였던 고혈압성 심질환이나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고혈압과 흡연이었으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허혈성 심질환과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 이외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당뇨, 비만 및 고지혈증은 최근 서구화되어 가는 한국인의 생활습관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꾸어야 한다.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질병 발생규모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기초적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가 차원의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사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심혈관질환 센터(가칭)'와 같은 전문적인 심혈관질환 연구기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심혈관질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심혈관질환의 국가적인 발생 및 유병 상태를 파악하고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비롯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예방과 관리 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 인해 국가적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